

# H2KOREA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4.6.28 H2KOREA 정책지원실 -

- ◇ 작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 I. 국내

### □ 산업계

- **현대차, 수소사회 청사진 'HTWO' 부산서 제시**(24.6.27, 매일경제)
  - 현대자동차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통해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 현대차는 HTWO 솔루션을 통해 수소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
- **현대차그룹, 제주에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기증**(24.6.27, TV조선)
  - 현대차그룹은 27일 제주도 행원 수소 수전해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CFI 에너지미래관에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버스 전달식'을 개최
  - 현대차그룹은 향후 대구·충북 지역에도 소방관 회복지원차를 추가로 기부할 예정

### □ 정부

- **한일 산업장관, '수소공급망 개발 워킹그룹' 신설 합의**(24.6.27, 연합뉴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및 성과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힘
  - 양측은 국제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한일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및 활용 협력 플랫폼' 발족을 추진하는 등 민간 차원의 청정수소 분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는 데 합의

- **한·미, 수소기술 상용화 등 청정에너지 협력안 논의**(‘24.6.27,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힘
  - 산업부는 지난 25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활발히 논의

## □ 지자체

-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예산 90억 확보**(‘24.6.27, 연합뉴스)
  - 파주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2024년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금 60억 원을 유치하게 됐다고 27일 밝힘
  -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소 관련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해 수소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충전소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

## □ 인터뷰

- **범한퓨얼셀 황정태 대표이사 “수소연료전지에 진심 다해 선도적 기술 개발과 사업화 추진할 것”**(‘24.6.26, 가스신문)

## II. 해외

### □ 정부

- EU, 스웨덴에 대규모 그린철강 시설 구축에 2.65억 유로 예산 승인 ('24.6.26, FuelCellsWorks)
  - EU가 스웨덴 보덴시 대규모 그린철강 시설을 구축하는 H2GS 프로젝트를 위한 2.65억 유로 예산을 경제회복기금(RRF)을 통해 승인함
  - 프로젝트는 690MW 용량의 수전해 시설 구축, 직접환원철 시설, 2기의 전기아크로, 후처리 시설 등을 포함함
  -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가동되어 매년 2.4백만톤의 그린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 87%의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함

### □ 산업계

- BloombergNEF, 선박용 그린메탄올 수급 부족 예상('24.6.25, Hydrogen Insight)
  - 수소로 생산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2024년 3월 기준 225대가 건조 주문에 들어갔으며 5년안에 운용에 들어갈 예정임
  - 이는 EU 배출가스거래제도(ETS) 개정에 따라 2026년까지 선박의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했으며 탄소감축을 위한 그린메탄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EU 제도 내 선박은 총 선박량의 18%이며 모든 선박연료가 메탄올로 대체될 경우 연간 8천만톤의 메탄올, 또는 7.2백만톤의 그린수소가 필요함

「수소에너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소ANSWER” 시즌2」 바로보기  
 <매달 공개, 산업부 유튜브 채널>

<p>🎯 <u>1화 인천 수소생산기지편</u>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한다고?”</p>	
<p>🎯 <u>2화 여수 수소출하센터편</u>                  “현장에서 직접 알아보는 수소출하센터의 모든 것!”</p>	
<p>🎯 <u>3화 원자력 청정수소편</u>                  “깨끗한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구?”</p>	
<p>🎯 <u>4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편</u>                  “수소를 활용한 도심 속 발전소가 있다?!”</p>	
<p>🎯 <u>5화 H2MEET 편</u>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를 한국에서?!”</p>	
<p>🎯 <u>6화 수소의 날 편</u>                  “수소경제 활성화! 우리 함께 열심히 했다고요!”</p>	
<p>🎯 <u>7화 제주 그린수소 실증단지 편</u>                  “바람으로 만드는 그린수소!”</p>	
<p>🎯 <u>8화 수소안전 뮤지엄 편</u>                  “국내 최초! 수소의 안전함을 홍보하는 수소안전 뮤지엄”</p>	
<p>🎯 <u>9화 창원 액화수소 편</u>                  “수소를 액화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고?!”</p>	

□ 2024년 수소산업 현장 규제개선 의견 수렴 안내

- H2KOREA 기업지원실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합니다.

\* [링크 바로가기](#)  클릭

## 수소 규제 개선사항 의견 수렴 안내

□ 개요

○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추진

-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통해 규제개선 신속 진행

\* 주요 5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 및 수소경제정책관 주재 본회의로 구성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64건('24년 37건 해결) 이외 민간협의체 57건('24년 27건 해결) 추가 발굴

□ 제안 방법

○ (접수처)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 웹페이지 내 '규제개선 - 규제접수' 메뉴를 통해 지원

※ (바로가기) <https://www.h2hub.or.kr/main/info/step1.do>

○ (접수기간) 상시접수(누적 접수건 연 2회 규제개선 안전 상정 진행예정)

※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 추진절차

2	3	4	5	6	7	8	9	10	11	12
○ 신규과제 발굴(H2K) - 기업 간담회 실시 (정부인프라구축사업자,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 / 포털 상시접수										
○ 신규과제검토 · H2K-실무WG 사전검토 · 유사기업발굴	○ 1차 신규과제 확정 · 관리카드 절달 (KGS 등 인허가기관)	○ 발굴과제 검토 협의 · KGS 내부 검토 · 산업부(H2K) - 타부처 협의 검토		○ 2차 신규과제 확정	○ 협의 및 확정 · 타부처 협의 진행 · 전체회의 진행					
○ 개선사항 안내(차년도 1월)										

○ (문의처)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기업지원실

- 정태원 선임연구원(02-6258-7460, twon@h2korea.or.kr)

- 신경철 선임연구원(02-6258-7483, kcshin@h2korea.or.kr)

- 황윤주 수석연구원(02-6258-7467, yunju117@h2korea.or.kr)